코스모코스 '비프루브'

싱가포르·대만 등 해외시장 공략

COSMOCOS

싱가포르서 亞 최대 뷰티스토어 입점

내년 1월 대만서 300개 매장 들어가

KT&G의 자회사 코스모코스가 해외 진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모코스는 자사 브랜드 '비프루브(VPROVE)'가 싱가폴 '사사(SASA)' 매장 및 대만 드럭스토어 입점했다고 8일 밝혔다.

코스모코스는 지난해 말레이시아 '왓슨'과 '사사' 매장에 '비프루브'가 입점한데 이어, 이번 싱가폴 사사 매장 23개점에도 성공적으로 입점함으로써 '비프루브'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사사'는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280여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700여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아시아 최대 뷰티 스토어이다. 싱가폴 사사 매장에서는 비프루브의 베스트 셀러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비프루브'는 대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난 1일 대만 드럭스토어 POYA, Tomods 260개 매장 입점을 시작으로 11월 말에는 Hands, City Super, 일약본포 등 100여개 매장에,

코스모코스 비프루브가 싱가포르 사사(SASA) 매장 입점했다. /KT&G

2019년 1월에는 대만 '코스메드' 300개 매장에 입점할 예정이다. '코스메드'는 대만 최대 유통기업 통일그룹의 자회사로 화장품, 미용용품, 의료용품 등을 판매하는 대만의 대표 드럭스토어 체인이다.

현재 대만 뷰티 시장은 한국 화장품 5위 수출국이자 아시아 최대 뷰티 잠재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만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대만인은 88만8000명으로, 2015년 대비 77.6% 증가하는 등 대만에서 한류 및 K뷰티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또한 1인당 화장품 소비액이 높은 아시아 3대 국가 중 하나인 만큼 '비프루브'는 대만에서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대만 드럭스토어 관계자는 "대만에서는 수분크림이나 모이스처라이저, 미스트처럼 효과가 즉각 눈에 보이면서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이 인기이기 때문에 비프루브의 스킨케어 라인 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전했다.

현재 '비프루브'는 싱가폴,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홍콩 등의 다양한 국가와 거래중이다. 코스모코스 관계자는 "활발한 해외 매장 진출을 통해 더마 제품에 관심이 많은 해외 소비자들이 '비프루브'의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할 것"이라며 "'비프루브'만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담겨있는 우수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K뷰티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코스모코스 '비프루브'는 향후 아시아 뿐만 아니라 해외 다양한 국가 및 매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의 입지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이마트, 6천원대 랍스터 판매 이마트가 개점 25주년 행사 '블랙이오' 기념으로 캐나다산 자숙 랍스터(325g 내외, 냉동)를 14일까지 6천9백8십 원에 판매한다. 8일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행사용 랍스터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독성 보호 '유산균 조성물' 특허

한국야쿠르트, 유산균 산업화 선도

한국야쿠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미세먼지 독성 저감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 유산균은 현재 한국야쿠르트의 발효유 제품에 적용돼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자사의 대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카세이 HY2782(이하 락토바실러스카세이)' 균주를 이용한 조성물이 미세먼지 독성을 저감하는 효과로 특허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유산균 조성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보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락토바실러스 카세이 균주를 포함하는 미세먼지 독성에 대한 세포 및 조직 보호용 조성물'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KIST가 연구에 사용한 유산균은 한국야쿠르트가 사람의 장에서 분리해 사용 중인 락토바실러스 카세이 균주다.

KIST 연구결과에 따르면 토양에 서식하는 '예쁜꼬마선충 장수, 노화 등의 기초 생물학 연구를 비롯, 여러 가지 유해물질의 독성평가에 널리 쓰이는 모델동물'에 미세먼지를 투여했을 때 벌레의 생장과 생식능력이 감소하며, 이 벌레에게 락토바실러스 카세이 균주를 먹인 경우 미세먼지에 의한 독성이 유의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야쿠르트는 지난 1976년 식품업계 최초로 중앙연구소를 설립하고 4000여종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유산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 연구원이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

올해는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HP7(Lactobacillus paracasei HP7)'을 포함해 4건의 신규 특허 등록을 마치며 총 150여건의 특허기술을 보유했다.

한국야쿠르트는 면역, 구강, 피부건강까지 유산균을 이용한 특허 등록을 마치며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산업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심재헌 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장은 "한국야쿠르트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균주의 우수성과 기능성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 및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기능성 제품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박인웅 기자

하이마트 "김치냉장고 '스탠드형'이 대세"

스탠드형 매출 비중 꾸준히 증가세

기능 다양화로 세컨드 냉장고 인기

대용량 스탠드형 김치냉장고가 인기다. 8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최근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의 매출 비중은 2016년 72%, 2017년 74%, 2018년(1~10월) 78%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가운데 400리터대를 넘는 대용량 스탠드형의 매출 비중이 두드러졌다. 2016년 49%, 2017년 51%, 2018년(1~10월) 56%를 차지했다.

대용량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는 일반 냉장고만으로는 부족한 저장 공간을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칸칸이 다른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주요 제조사가 출시한 제품들은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됐다. 김치뿐만 아니라 육류, 쌀, 뿌리채소, 열대과일, 주류 등이 해당된다.

모델들이 대용량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제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김치 보관'이라는 본연의 기능도 놓치지 않았다. 유산균 숙성, 급속 냉각, 발효 기능 등 보관 원리를 한층 다양화했다.

롯데하이마트 김상은 가전팀 MD는 "김치냉장고를 '세컨드 냉장고'로 쓰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대용량 스탠드형 제품의 인기도 늘고 있다"며 "특히 한 번에 장을 많이 보는 대가족이나 맞벌이 가구 소비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풀무원, 中 상하이서 국제수입박람회 참가

60여개 제품 전시하며 이목 집중

풀무원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 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풀무원은 이번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전시관을 열고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포장두부, 간편식 파스타, 식물성 발효음료 등 총 60여개 글로벌 제품을 실물 전시하고 시식 행사도 병행하여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특히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판매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포장기술이 접목된 포장두부를 선보여 큰 이목을 끌었다. 이번 박람회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푸메이뚜어식품(중국 현지 법인명) 박태준 팀장은 "풀무원이 2016년 미국 두부시장 1위 브랜드 나소야를 인수하고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30만모 이상의 포장두부를 생산하는 글로벌 No.1 두부기업이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며 "중국 현지에서 풀무원 브랜드의 역사와 생산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풀무원이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제 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했다. /풀무원

풀무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생면 파스타, 냉면, 떡볶이 등 가정간편식(HMR) 제품도 대거 선보였다. 생면 피스타는 포장두부와 함께 풀무원의 중국 전략 제품으로 중국에 진출한 식품기업 중 최초로 건면이 아닌 생면 파스타를 가정간편식 형태로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인웅 기자

유통 단신

세븐일레븐

'으랏차차 不落덮밥' 선봬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오는 15일 실시되는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을 위한 도시락을 8일 출시했다.

세븐일레븐이 선보인 '으랏차차 불낙덮밥'은 아닐 불(不), 떨어질 낙(落)의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은 도시락이다. 낙지는 원기를 회복하고 피로감을 낮춰주는 음식 중 하나로 수험생들에게 걸 맞는 요리 재료 중 하나다. /김민서 기자

롯데제과

'자일리톨베타 비타D'

롯데제과가 8일 비타민D를 첨가한 기능성 껌 '자일리톨베타 비타D'를 선보였다. '자일리톨베타 비타D'의 껌 한 알에는 비타민D가 10㎍(400IU)가 들어있어, 하나만 씹어도 하루 권장량을 모두 충족시킨다. 껌에 비타민D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사례로, 껌이라는 편의성 때문에 상대 8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비타민D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박인웅 기자

삼양식품

'맛있는라면 해물맛' 출시

삼양식품은 '맛있는라면 해물맛'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맛있는라면 해물맛'은 새우, 오징어, 홍합 등 각종 해산물을 포함한 60여가지의 건강한 재료로 맛을 내 다른 해물라면과 차별화되는 깔끔하면서도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맛이 특징이다.

/박인웅 기자